

Q1 결혼 9년째인 36세의 남성입니다. 아내에게 임신 공포증이 있어 성생활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피임법(주로 피임약, 월경주기 등)이 몸에 맞지 않아 부부관계 시 꼭 콘돔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성욕이 강한 편이고 성교시간도 긴 편이라 아내가 무척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밖에서 다른 여성을 알게 되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도 임신 공포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서인지 성관계가 만족스러웠고 온통 그녀 생각에 꼭 차 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아내도 의심을 합니다. 저는 밖의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데 같

여성 성기능 장애 (Q&A)

유 회 현 · 유희현 산부인과 원장

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신의 공포증에서 벗어나 아내와 정상적인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아내는 성적으로 흥미가 없어 부부관계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A. 피임방법엔 영구 피임방법과 한시적 피임방법이 있습니다. 분만을 완료한 부부인 경우는 영구 피임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구 피임방법은 수술적 방법으로 여성의 경우 난관 결찰술(일명 복강경불임술)과 남성의 경우 정관 결찰술이 있습니다.

한시적 방법에는 여성의 경우 자궁 내 장치(일명 루프), 먹는 피임약, 피임 질정, 여성콘돔 등이 있고 남성의 경우 콘돔과 질 외 사정 등이 있습니다만 질 외 사정은 피임 효과가 극히 미약하므로 피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피임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모든 점에서 만족할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피임방법들은 각기 장, 단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성의 난관 결찰술의 경우 수술 후 후유증(요통, 하복통, 자궁 외 임신 등)이 있을 수 있고, 정관 수술의 경우 정력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남성의 경우

거세되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상실을 초래하며 정력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남성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임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구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제일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한시적 피임방법 중 자궁 내 장치의 장점으로는 단 한 번 시술하여 5년 내지 10년의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간편한 대신 생리의 양과 생리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과 생리 외의 부정 성기출혈이 약간 있을 수 있고 생리통이 약간 증가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자궁암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피임효과가 매우 탁월하지만 호르몬제인 관계로 3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장기 복용으로 생리량의 심한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기미, 소화장애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콘돔은 피임효과와 성병예방 효과가 있지만 잘못 착용할 경우 피임효과가 확실치 못하고 애액 분비의 효과가 떨어져 성감의 감소가 초래될 우려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피임방법으로는 추천할 만하지 못합니다. 남성의 콘돔은 간편하지만 사용 중 콘돔의 파열 및 이탈 등으로 피임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임 질정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임효과가 높지 못하고 여성의 성감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에서 임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원만한 성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부인과는 성관계가 만족치 못하지만 외도할 때 만족을 느끼시는 남성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묻자면 첫째, 남성들이 부인에게 성관계 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에 대한 불안감, 부인을 만족시켜야 남편으로서 권위가 선다는 강박관념 등입니다. 둘째, 유교적 사고에 기인된 부부 성생활의 소극성 및 행동의 절제가 그 중요한 원인인데, 부부간의 바람직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부 성생활에서는 부인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부인의

성 의식을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성 지식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성생활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저는 40대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별 후 6개월 동안 혼자 지내다가, 친구의 이혼한 여동생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시에 아내는 통증을 호소하고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이 아주 짧고 얇아서 아내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자궁적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빈궁마마란 얘기는

궁암이 원인이 되어 자궁을 절제할 때는 질부도 어느 정도 절제되어 질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지만 질의 내강을 줄임으로써 길이가 약간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깊이 삽입되지 않도록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아내는 성적으로 정말 속삭입니다. 오르가즘이란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시 몹시 싫어하고 이런 것 안 하면 안되냐고 할 정도니까요. 부부관계 시에 뿔뿔뿔 아무 반응 없이 시체처럼 누워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내 자신이 동물처럼 느껴져 멧쩍기만 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포르노 영화나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이곳 저곳을 만져도 아무 감각이 없답니다. 선천적으로 석녀이거나 자라온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성적으로 미발달의 여성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A. 선천적으로 석녀는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난 여성들 중에는

말입니다. 남녀 모두 마찬가지로 성에 관심이 크고 자극에 예민한 사람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라온 환경이 너무 완고하고 성을 천시하는 유교적 환경에서 자란 여성인 경우, 어릴 때 무슨 원인이었든 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경우에 특히 성에 관해 무관심하고 성적 자극에 둔감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신혼 시절 여러 식구들과 동거하며 관계 시 너무 신경이 쓰이는 환경인 경우 여성의 불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성의 불감증은 전문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포르노 영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은 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 관계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72**



들었으나 이런 경우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지요? 자궁적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여성들이 자궁을 드러내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자궁 근종이며 자궁출혈, 자궁암 기타 만성 자궁경부염 등도 있습니다. 예전엔 분만을 완료한 여성의 경우 자궁암 예방차원에서 자궁에 심각한 이상이 없어도 쉽게 절제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자궁의 역할이 비단 아이를 분만하는 데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생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자궁절제로 인한 후유증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존하려는 경향입니다.

자궁이 없다고 성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